

#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mpulse in Adolescence :  
Mediating Rol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문경숙(Kyoung-Suk Moon)<sup>1)</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mpulse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2959 ninth grade students in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among 3211 students (excluding missing case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Following Baron & Kenny's (1986) suggestion, the mediator model was employed to analyze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sults showed that academic stres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dolescent's suicidal impulse. Parent attachment acted as a partial mediator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mpulse; that is parent attachment provided a protective mechanism minimizing the direct effects of academic stress. However, peer attachment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cademic stress.

**Key Words** : 학업 스트레스(academic stress), 부모 애착(parent attachment), 친구 애착(peer attachment), 자살 충동(suicidal impulse).

## I. 서 론

통계청(2005)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자살로 목숨을 잃은 청소년(10~19세)은 246명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이 청소년 사망의 주요인이 될 정도로 많아지자 청소년 자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자료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2004년의 6편과 비교했을 때 2005년에는 14편으로 그 수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삶이

<sup>1)</sup> 고려대학교 BK21 교육학 연구 및 국제화 사업단 연구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Kyoung-Suk Moon,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5 Ga 1 Anam-Dong, Seongbuk Gu, Seoul 136-701, Korea  
E-Mail : kyoungsuk@korea.ac.kr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삶의 가치를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삶을 끝내버리고 마는 자살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무엇인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소년 자살을 보는 견해에 있어서 연구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한 이들의 현실도피 방법(한국청소년개발원, 1996)”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삶에 대한 희망이 없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도 없다는 절망감에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사건(김연중, 2005; 박상철·조용범, 1998)”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가슴깊이 감추어둔 호소, 즉 도움을 청하는 울음의 극단적인 표현(이경진·조성호, 2005)”이라고 간주하는 학자도 있다. 그 정의가 어떠한든지 간에 청소년 자살은 이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영혼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일찍이 Erikson(1968)은 자신의 존재의미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단시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삶이 주는 기쁨, 삶의 가치로움 등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Lee & Larson(2000)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미국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우울정도가 높는데, 이는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건전한 여가시간의 부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자살 원인에 대한 국가간 비교(최원기, 2004)에서는 한국청소년은 대입 경쟁으로 인한 공부압력과 가족 내 갈등이 주요 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시사하

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도 볼 수 있다. 삶의 주요 일과가 학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삶은 기쁨과 가치를 느끼게 하기 보다는 벗어나고픈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최근에 데이터뉴스(2006.5.12. [www.datanews.co.kr](http://www.datanews.co.kr))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초·중·고생 2,356명 중 46.4%가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봤다고 응답하였고, 자살을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성적비관(19.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자살은 청소년들의 삶과 가까이 있는데 비해,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 김기환·전명희(2000)는 김기환(1999)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청소년들은 자살충동을 6번째로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부모들은 16위로 인식하고 있어서, 청소년 자녀의 자살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은 자살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아동학회와 한솔교육문화연구원(2001)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의 66.2%가 공부, 장래, 친구관계 및 진학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홍영수, 2005, 재인용). 현대인으로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청소년기는 감수성도 예민하고,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기제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우울과 자살을 유발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경진·조성호, 2004; 홍영수·전선영, 2005). 물론 모든 스트레스가 자살사고(suicidal thought)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자살사고가 실제 자살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살사건이 일

어난 경우를 분석한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기환과 전명희(2000)는 1994년부터 1999년 까지 국내 4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실린 청소년 자살 기사를 분석한 결과 성적비관이나 대학입시에 대한 중압감, 학교폭력이 전체 사례 수 112건 중에 40건으로 35%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능성적결과 확인 후 자살한 경우는 총 10건으로서 전체 자살촉발사건 92 건 중에서 10.6%나 되었다(사례 수는 보고되지 않았음). 이처럼 여러 스트레스요인 중에서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과 깊은 관련이 있는 변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애착이론은 부모와 자녀가 형성하는 친밀한 애착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Bowlby(1969)는 유아가 태어나면서 자기를 돌보아 주는 사람(primary care giver), 특히 어머니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는 것을 애착(attachment)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유아와 어머니 간에 친밀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발달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Ainsworth, 1989, 재인용). Bowlby는 애착의 개념을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시켰지만, 애착관계는 유아의 단계를 넘어서서 전 인생주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관계 양상이다. 유아에게만 어머니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발달변인이라는 데 연구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김은식·이경남, 2004; 도현심, 1999; 문은식, 2003; 박정녀·최해림, 2005; 유안진·이점숙·정현심, 2006; 이경남, 2002; 탁영란·이은영, 2004).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 중에 자율성과 독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부모와

의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할 때 적응의 문제를 덜 경험하고 문제행동을 덜 보이게 된다(Grotevant, 1998; Grotevant & Cooper, 1998). 청소년의 애착과 외로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현심, 1999)를 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덜 경험하며,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 때 비행성향이 낮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부선희, 1999). 즉 청소년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심리적 안녕과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도현심, 1999; 부선희, 1999; 장휘숙, 1997). 청소년들이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자신들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 줄 것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는, 가정 밖에서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언제든 돌아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전기지(secure base)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자살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일련의 연구들은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양상이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예로, 손병덕(2005)은 부정적인 형태의 자녀양육, 즉 과도하게 강압적인 양육방식과 신체적 학대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불안을 가져오게 하고 자살충동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하면서 경쟁적이고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의 해방구로서 부모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경(2005)은 자살사고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면서 사회적 지지, 즉 가족이나 친구 기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만족

스럽지 못할 때 자살행동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가 무망감(hopelessness)으로 인한 우울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양육경험 및 자살구상에 대한 연구(전영주, 2001)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부정적 양육경험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울증을 매개로 하여 자살구상으로 연결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자녀관계가 애정부족 및 비지지적이고 공격적일 때 자녀의 자살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요약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 못지않게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것이 친구에 대한 애착관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친구관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유안진 · 이점숙 · 김정민, 2005), 친구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장희숙, 1997)는 것이다. 학교생활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가정 밖의 인간관계인 친구관계를 통해서 주요 정보도 얻고 또 궁금하거나 고민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하면서 친구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한 친구끼리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자기들만의 문제해결 전략을 논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친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하는 것이 부정적인 심리상태로의 전환을 약화(혹은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규련, 1999; 전영주, 2001, 재인용)과 이경님(200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증을 적게 경험하며(이경님, 2002), 자아존

중감도 높고(이경님, 2002; 탁영란 · 이은영, 2004), 학교생활에도 더 잘 적응한다(문은식, 2003). 적대적인 친구관계인 왕따나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을 때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도현심, 1999) 자살행동을 많이 보이기도 하며(김기환 · 전명희, 2000) 부정적인 친구관계는 자살충동과도 관련이 있다(손병덕, 2005).

지금까지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자살과 관련된 변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김기환 · 전명희, 2000; 김향초, 1993; 김현실, 2002, 2005; 박광배 · 신민섭, 1990; 손병덕, 2005; 신민섭 · 박광배 · 오경자 · 김중술, 1990; 윤성림 · 윤진, 1993; 이경진, 조성호, 2004; 전영주, 2001; 정철순 · 임숙빈 · 고효진, 2001; 최원기, 2004).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은 위험요인(risk factors)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기제(protective mechanism, Rutter, 1989)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에 이루어진 몇몇 연구들(박경, 2005; 이지연 · 김효창 · 현명호, 2005; 홍영수, 2005)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완충역할(buffering)을 하는 변인들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애착이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충동간의 관계에서 보호기제로서의 완충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애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 연구는 없었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애착이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연결되는 통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자살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애착이 완충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지라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자녀가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고, 가정을 떠난 학교 상황에서도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막을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칠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완충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칠 때, 친구에 대한 애착이 완충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본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종단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청소년패널데이터(KYPS : Korean Youth Panel Survey)를 사용하였다. 청소년패널데이터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반복 추적 조사하는 종단자료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종단적 연구모형은 동일 표본을 세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 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3년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하였고, 표집에 선출된 총 2,808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1개 학급 전원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 자료는 청소년의 직업관, 진로관, 자아관, 여가활동, 및 일탈행위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제반 실태를 분석하고자 수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데이터 중에서 2차년도(2004년)에 실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중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설문지를 완성한 것이 된다).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1차년도 설문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자살충동을 묻는 문항이 2차년도 설문지부터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 데이터는 1차 년도에는 3,449명이 설문지를 완성하였지만, 2차 년도에는 3,211명이 설문지를 완성하여 93.1%의 조사 성공율을 보여주고 있다.

### 2. 연구도구

#### 1) 학업스트레스

청소년패널자료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은 4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 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각 문항 모두 5점 척도(1 : 그런 적 없다, 5 : 항

상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높은 점수는 높은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이 문항의 Cronbach의  $\alpha$ 는 .820으로 나타났다.

### 2) 자살 충동

청소년패널자료에서 자살 충동을 묻는 문항은 1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문항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높은 점수는 높은 자살 충동을 의미한다.

### 3) 부모 애착

청소년패널자료에서 부모 애착을 묻는 문항은 6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 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높은 점수는 높은 부모 애착을 의미한다. Cronbach의  $\alpha$ 는 .882로 나타났다.

### 4) 학교친구 애착

청소년패널자료에서 친구 애착을 묻는 문항은 4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친구 애착에 대한 문항에 대답하기 전에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물어본 후에 그 친구들과 애착관계를 묻는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높은 점수는 높은 친구 애착을 의미한다. Cronbach의  $\alpha$ 는 .832로 나타났다.

### 5) 공변인(covariates)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을 공변인으로 책정하였다.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하여 남녀집단 간에 성차가 없다고 언급하는 연구(신민섭 등, 1990)도 있고,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자살기제가 다르다고(전영주, 2001) 주장하는 연구도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은 성별 없이 하되 성별(남자=0, 여자=1)을 공변인으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가정과 관련된 변인이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가족구성 형태(양부모와 함께 거주 함=0,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음=1)를 두 번째 공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또 다른 공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어머니의 취업=0, 전업주부=1)를 투입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을 세 번째 공변인으로 투입한 이유는 어머니가 취업으로 자녀와 함께 나눌 시간이 부족할 경우, 전업주부인 어머니를 둔 가정과는 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 패널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치를 먼저 구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업스트레스, 부모 애착, 친구 애착, 자살충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로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분		포	
성별	남자	1604(50%)	여자	1605(50%)
가족 구성	양 부모와 함께 산다	2834(95.4%)	양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	137( 4.6%)
어머니의 직업 유무	유	1561(50.5%)	무	1528(49.5%)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375(12%)		
	고졸	1396(44.4%)		
	(전문)대졸 이상	1374(43.6%)		
어머니의 학력	중졸 이하	539(17.2%)		
	고졸	1838(58.8%)		
	(전문)대졸 이상	747(24%)		

는 각 측정 변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매개모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분석

####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가족구성형태, 어머니의 직업 유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대한 분포를 알아보았다(〈표 1〉). 〈표 1〉에서 ‘양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의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다’,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다’가 합하여진 사례수이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2. 상관계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업 스트레스는 부모 애착과 부적 상관( $r=-.157, p<.001$ )이 있으며, 자살충동과는 정적 상관( $r=.241, p<.001$ )이 있었다. 부모 애착은 친구 애착과는 정적 상관( $r=.173, p<.001$ ), 자살충동과는 부적 상관( $r=-.139, p<.001$ )이 있었다. 친구 애착은 학업 스트레스( $r=.023, p>.05$ )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지만, 자살충동( $r=-.053, p<.05$ )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표 2〉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학업 스트레스	3197	3.014	.849
부모 애착	3198	3.425	.752
친구 애착	3202	4.166	.666
자살 충동	3206	2.27	1.124

〈표 3〉 변인 간의 적률 상관계수

변인	학업 스트레스	부모 애착	친구 애착
부모 애착	-.157***		
친구 애착	.023	.173***	
자살 충동	.241***	-.193***	-.053**

\*\* $p<.05$  \*\*\* $p<.001$

#### 4. 매개 모형에 대한 검증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 충동과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방법을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간의 회귀 계수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또는 친구) 애착간의 회귀계수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세 번째로는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또는 친구) 애착을 동시에 예언 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계수를 구했을 때, 첫 번째에서 유의했던 회귀계수가 그 영향력이 상실되거나 줄어드는지를 알아보았다. 부모(또는 친구)에 대한 애착이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충동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가,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또는 친구) 애착을 동시에 회귀 계수에 투입했을 때와 비교해서 그 양에 있어서 줄어들거나 무의미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1)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한 결과, 자살충동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한 회귀 모형이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F=48.251, p<.001$ ).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간의 회귀 계수는 유의미하였으므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다 (<표 4> 참조).

2) 학업 스트레스가 부모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가 부모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부모 애착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한 회귀 모형이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F=32.584, p<.001$ ).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 애착 간의 회귀 계수는 유의미하였으므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3)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간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의 매개 효과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간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의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살 충동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하고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 애착을 예언 변인으로 상정한 회귀 모형이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F=54.931, p<.001$ ). 이 회

<표 4>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변 인	B	S.E.	$\beta$	t
상 수	1.361	.132		10.332***
성별(남=0, 여=1)	.041	.040	.018	1.034
양 부모와 거주(거주 안함=0, 거주 함=1)	-.139	.096	-.026	-1.442
어머니의 직업(유=0, 무=1)	.004	.040	.002	.110
학업 스트레스	.325	.024	.245	13.737***
R <sup>2</sup>			.061	
adjusted R <sup>2</sup>			.060	
R <sup>2</sup> change			.061	
F			48.251***	

\*\*\*  $p<.001$



<표 5> 학업 스트레스가 부모애착에 미치는 영향

변 인	B	S.E.	$\beta$	t
상 수	3.452	.089		38.777***
성별(남=0, 여=1)	.180	.027	.120	6.621***
양 부모와 거주(거주 안함=0, 거주 함=1)	.154	.065	.043	2.367*
어머니의 직업(유=0, 무=1)	.004	.027	.003	.165
학업 스트레스	-.148	.016	-.167	-9.245***
R <sup>2</sup>			.042	
adjusted R <sup>2</sup>			.041	
R <sup>2</sup> change			.042	
F			32.584***	

\* $p < .05$  \*\*\* $p < .001$

귀모형에서 얻어진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간의 회귀계수를 <표 4>에서 구한 회귀계수와 비교해본 결과 .245에서 .218로 그 양이 약간 줄어들었고 두 회귀모형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부모 애착이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게 형성되기는 하지만,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이것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표 6> 참조).

4) 학업 스트레스가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가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친구 애착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한 회귀 모형이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F=12.166$ ,  $p < .001$ ).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 애착 간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앞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 애착 간의 상관계수를 구했을 때도 역시 무의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공변인으로 설

<표 6>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간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의 매개 효과

변 인	B	S.E.	$\beta$	t
상 수	2.183	.160		13.656***
성별(남=0, 여=1)	.087	.040	.039	2.179
양 부모와 거주(거주 안함=0, 거주 함=1)	-.102	.095	-.019	-1.078
어머니의 직업(유=0, 무=1)	.002	.040	.001	.060
학업 스트레스	.288	.024	.218	12.166***
부모 애착	-.238	.027	-.159	-8.840***
R <sup>2</sup>			.085	
adjusted R <sup>2</sup>			.084	
R <sup>2</sup> change			.085	
F			54.931***	

\*\*\* $p < .001$

〈표 7〉 학업 스트레스가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변 인	B	S.E.	β	t
상 수	3.908	.080		48.906***
성별(남=0, 여=1)	.168	.024	.126	6.885***
양 부모와 거주(거주 안함=0, 거주 함=1)	-.023	.058	-.007	-.396
어머니의 직업(유=0, 무=1)	-.006	.024	-.004	-.244
학업 스트레스	.010	.014	.013	.721
R <sup>2</sup>		.016		
adjusted R <sup>2</sup>		.015		
R <sup>2</sup> change		.016		
F		12.166***		

\*\*\*p<.001

정한 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했을 때 혹시 다른 결과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변인을 통제한 다음에도 무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학업 스트레스가 친구 애착으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변인이 있을 수 있거나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 애착은 서로 무관한 변인일 수 있다(<표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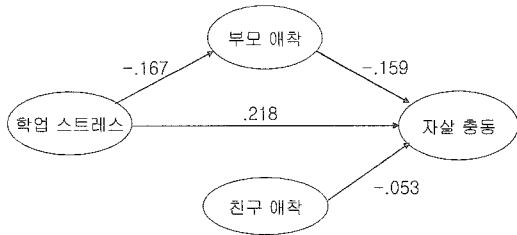
5) 친구 애착이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는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간의 관계에서 친구 애착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아 볼 차례이지만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 애착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서 친구 애착의 매개 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친구 애착을 예언 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자살 충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살 충동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하고 친구 애착을 예언 변인으로 상정한 회귀모형이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F=3.1423, p<.05). 친구 애착과 자살 충동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므로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살 충동을 적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친구 애착이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변 인	B	S.E.	β	t
상 수	2.661	.168		15.824***
성별(남=0, 여=1)	.078	.042	.035	1.868
양 부모와 거주(거주 안함=0, 거주 함=1)	-.130	.099	-.024	-1.315
어머니의 직업(유=0, 무=1)	-.014	.042	-.006	-.327
친구 애착	-.090	.031	-.053	-2.882**
R <sup>2</sup>		.004		
adjusted R <sup>2</sup>		.003		
R <sup>2</sup> change		.004		
F		3.142*		

\*p<.05 \*\*p<.01 \*\*\*p<.001



〈그림 1〉 학업 스트레스, 부모·친구 애착, 자살 충동과의 관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그리고 부모와 친구 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에 제시된 매개 모형을 근거로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간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산출한 결과가 <표 9>에 제시 되어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업 스트레스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해서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에 비하면 그 양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살 충동을 낮추기 위해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트레스 자체를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9〉 자살 충동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의 인과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245	.027	.272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 충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청소년들이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리고 현행 교육제도상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보호기제로서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애착관계의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청소년기의 애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학업 스트레스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와 친구 애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 결과 부모에 대한 애착은 그 완충 역할이 입증되었지만, 친구에 대한 애착은 입증되지 못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친구 애착의 매개 효과 검증에는 실패 하였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친구 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수반된다면 또 다른 의미 있는 발견을 해나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 애착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변인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심리 기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친구들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그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마저도 없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지연 등(2005)은 스트레스가 자살과 연결될 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개방적일수록 자살 생각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Wagner, Silverman, & Martin(2003)은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의 통

로가 원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청소년의 자살 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화의 통로를 찾고자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본 연구 결과와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청소년이 높은 학업 스트레스로 괴로워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녀의 어려움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고 자녀의 어려움을 공감해준다면 청소년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 사고는 순간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신민섭 등, 1990)을 감안해 본다면,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과 발달에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다른 연구결과들도(도현심, 1999; 부선희, 1999; 장희숙, 1997)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뢰와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의 가장 좋은 마음의 안식처는 부모이며, 부모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와 친근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 나간다면 부모야말로 청소년 자녀의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 관련 변인 중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변인이 스트레스이다(이지연 등, 2005).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 스트레스가 자살 충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은(민성길, 2005; 최미례 · 이인혜, 2003; 홍영수, 2005; 홍영수 · 전선영, 2005)은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야기 시키고, 우울증이 자살을 야기 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울증은 자신이 마음 둘 곳이 없고,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 때 안전 기지로서의 부모는 스트레스에 지친 몸과 마음을 피할 수 있는 보호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신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청소년 자녀가, 그들과 같이 고민하고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울증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보호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업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상정한 회귀모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자살 충동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의 설명양이 6%로서 비교적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표 4>).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물어보는 문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문항으로 청소년의 자살충동 여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 패널데이터에는 자살의 제 1 예언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홍영수 · 전선영, 2005)을 물어보는 2 문항이 자살충동을 물어보는 문항과 함께 나란히 제시 되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우울과 자살 충동을 “자살 성향”이라는 한 변인으로 묶어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후,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록 본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의 부분 매개 변인인 것이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R^2$  값이 .085로서 매개 모형의 설명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매개 변인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변인이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기는 했지만,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업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moderato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잘 형성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혹은 적게 받는 것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 충동이 달라진다면 부모에 대한 애착은 중재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고려해 보건데,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모형을 적용하여 그 관계성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 다른 해석은 부모에 대한 애착을 물어보는 문항이 얼마나 잘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를 반영하고 있는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Bartholomew와 Shaver(1998)는 자기보고식 애착 문항이,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더 중요한 애착관계의 질(quality)을 잡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개체간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애착은 주관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질문지로 애착의 양상을 측정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애착 검사 문항은 개인의 경험과 행동을 반영하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Bartholomew & Shaver, 1998).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문항 중에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는 문항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나 사랑과 애정을 보이는지에 대한 자녀의 판단을 묻는 문항이지,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질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확성이 본 연구

에서 상정한 모형의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애착의 매개 모형이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표 5>와 <표 7>의 회귀분석 결과를 참고해 보면 성별이 부모애착과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성별을 공변인으로 취급하여 미리 통제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더 정밀한 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서는 남녀 별로 매개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친구 애착이 학업 스트레스 및 자살 충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밝혀볼 필요가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에 친구에 대한 애착이 점점 증가할 뿐 만 아니라(장휘숙, 1997), 친구 관계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이경님, 2002) 감안해 본다면 친구 애착이 청소년의 자살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면서 심리기제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했던 자기 보고식 애착 문항의 부정확성이 친구에 대한 애착의 효과를 찾아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는 애착 관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만을 다루었지만, 친구관계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 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각각의 스트레스원 마다 어떤 보호기제가 어떻게 완충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기환·전명희(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 김연중(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신문의 자살 보도 행태분석. **한국언론학보**, 49(6), 140-166.
- 김인숙·이경님(2004).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한국가정과학회지**, 7(2), 97-113.
- 김향초(1993). 청소년 자살의 심리사회적 요인분석 및 예방대책 연구. **청소년학연구**, 1(1), 167-181.
- 김현실(2002). 청소년의 성격 특성, 가정 역동적 환경 및 자살시도 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2(2), 231-242.
- 김현실(2005). 청소년의 자살 시도 예측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1(1), 34-42.
- 데이터뉴스(2006.05.12 www.datanews.co.kr). 청소년 절반 '자살 생각해 봤다'
-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17.
- 문은식(2003).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 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41(3), 349-369.
- 민성길(2000). **최신정신의학**, 일조각.
- 박경(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2(2), 131-147.
- 박광배·신민섭(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9(1), 20-32.
- 박상철·조용범(1998). **자살 예방할 수 있다**. 학지사.
- 박정녀·최해림(2005).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 부선희(1999). 애착,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비행 경향성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병덕(2005). 일반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예측. **청소년학연구**, 12(1), 207-228.
- 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9(1), 1-19.
- 원호택·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임상심리학회지**, 6(1), 22-32.
- 유안진·이점숙·정현심(2006).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1), 167-181.
- 윤성림·윤진(1993).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특성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1), 107-120.
- 이경님(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진·조성호(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지연·김효창·현명호(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0(4), 375-394.
- 장휘숙(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17.
- 정철순·임숙민·고효진(2001). 청소년의 자살 위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4), 521-532.
- 최미례·이인혜(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2), 363-383.
- 탁영란·이은영(2004).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건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0(1), 89-97.
- 최원기(2004). 청소년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18(4), 5-30.
- 통계청 <http://www.nso.go.kr>
- 홍영수(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의 완충

- 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0, 7-33.
- 홍영수 · 전선영(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4), 125-149.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holomew, K., & Shaver, P. R. (1998). Methods of assessing adult attachment : Do they converge?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25-45). New York : Guildford Press.
- Bowlby (1969). *Attachment and loss : Attachment*. New York, NY : Basic Books.
-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 W.W. Norton & Company, Inc.
- Grotevant, H. (1998). Adolescent development in family context. In N. Eisenberg,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1097-1149). John Wiley & Sons, Inc.
- Grotevant, H., & Cooper, C. R. (1998).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E. E. A. Skoe & A. L. von der Lippe.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 A cross national and life span perspective*(pp.3-37). Routledge.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 Wagner, B. M., Silverman, M. A. C., & Martin, C. E. (2003). Family factors in youth suicidal behavio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9), 1171-1191.

2006년 6월 30일 투고 : 2006년 9월 9일 채택